

모든 인물은 '생각'을 한다.

- : 해야 하는 생각 (생각의 과정)
- : 자기화 (분량이나 단어를)
- : 강요도인드! (여의/특이/분량 등..)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무가 자나 잎사귀를 쳐들 때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환박 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펠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텔레올로지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하는 거다!

근대 학자들의 '생각' => 비판적!

비판하기: 생애방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 (인간만 이성을 가진다.)

A의 견해 예측!

의의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스스로 하는 거다! 이 특이한 수법에 없지! (생각의 과정) = 바람직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다." (인물은 강요적 행동)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의 생각? ③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이득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0 (본성 실현)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다. (인도사물)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내재적 본성

근대 학자들의 생각: (인물은 안 중요)
근대 학자들의 주장은 근거 X

어? '모든' 것이 틀리, 인간이구나!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②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① 생각 자체가 개연이 ② 비과학적 주장 따르며 볼로틴 X
- ② 갈릴레이와 우드펠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② 우드펠드의 -> 비과학적 주장 따르며 사생활인
- ③ 베이컨과 우드펠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① 생각 자체가 개연이 ② 근대 학자 주장 따르며 베이컨 X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① 생각 자체가 개연이 ② 비과학적 주장 따르며 볼로틴 X
- ⑤ 스피노자와 우드펠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비과학적이다. 주장 따르며 우드펠드 X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에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같은 것이 있을 수 X~~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목적론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 문기는
'지문' 과 연계해서!
'지문' 을 바탕으로!

같은 것이거나
복합과거나 문라!